

■ 電算入門回顧

전산분야에 근무하기 시작 하던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 머지 않아 두번이나 바뀌게 되었다.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반, 막연한 기대감 반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 시절에는 프로그램을 짤 때는 Coding Sheet에 코딩하여, CARD에 Punch하여서 Card Reader로 읽혀서 Compile하고 ERROR가 없으면 모의 Data를 또 Card로 입력하여 Test 해보는 Batch System뿐이었다.

업무분석과 설계가 끝나면 Flow Chart를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프로그램 Coding이 완료되면 조급한 마음에 천공요원(Puncher) 아가씨들에게 아양(?) 떨어가면서 CARD Punch를 부탁하곤 하였다. PUNCH된 CARD DECK을 자칫 잘못하여 떨어뜨려 흩어지는 날에는 Card 한장, 한장씩 순서대로 찾아 정리하느라 혼이 나곤 하였다. 그 다음은 Computer 기계실요원(Operator)들에게 Coffee라도 한잔 바쳐들고 가서 빨리 작업해 달라고 이부(?)라도 하지 않을 때는 Compile List 한장 받아보는 데 며칠씩이나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무사히 작업에 들어가면 Computer는 겨우 2-3초 동안에 Compile을 완료하여 Error 투성이의 List를 출력해 주었다. 이를 받아본 순간, 지금까지 겪었던 수모의



申孝植

한국통신 전산사업단 부장

결과가 이렇게 많은 ERROR 투성이의 List뿐이란 말인가? 하고 자문자답 하면서 허탈감 속으로 빠져 드러가게 된다. 불쑥 담배 한개피 피워물고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며 회상에 잠겨 죄없는 Computer를 원망해 보기도 한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뒤에 Compile List를 Debugging 하기 시작한다. Manual을 펴 찾아보고 Program LOGIC을 다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본다. Manual이라는 것이 영어로 되어 있어도 아무리 해석을 해 보아도 제대로 감이 잡히지 않는다. Computer라는 녀석이 미국에서 誕生되었고 그들 문화에서 전문용어로 만들었으니 애시당초 모두 이해하기란 기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연하리라.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먼저 시작한 고참님들에게 묻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위세(?)는 대단하다.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여 알게된 것인데 쉽게 가르쳐 주겠느냐는 심사에서 일 것이다. 갖은 구박도 받아가며, 가끔 소주잔도 함께 기울이면서 전산기술을 전수받는다든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특히 “거품족” Mr. Bubbly라고 하여 우리나라가 거품경제 현상을 보이던 86년경부터 90년사이에 입사했거나 이무렵 대학시절을 보낸 신세대들을 지칭한다고 한다. “아직도 好時節이 계속되고 있다”는 착각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3무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무관심, 무능력,

무책임이라고 하겠다. 조직의 입장보다는 개인만을 중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시하며, 불평불만을 일삼는 성향을 보이는 소위 회사내의 “실업자상”들이라고 하겠다. 이들을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스스로 무능함을 자처하고 일을 맡지 않으려는 “대답파”가 있고, 여러가지 이유만 내세우고 사적인 일에만 신경쓰는 자기나름대로의 “실속파”도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들은 상사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이들이 바라는 상사는 형식과 기성주의를 중시하는 형 보다는 3E (ENJOY, EXCITING, ENTERTAINMENT)형이라고 한다. 즉 즐겁고 재미있고 텔런트형의 상사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제 관리직의 상사들은 지금까지 호된 시집살이를 겪고도 며느리의 효도 한번 못받아보는 불쌍한 세대가 되었다고나 하겠다.

더우기 우리사회도 3D(DIRTY, DIFFICULTY, DANGEROUS) 기피현상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많은 기업들이 유능한 젊은 인재부족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우수한 학교를 졸업하고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젊은이가 많다고들 한다.

이러한 신세대를 조직과 融和시키는 새로운 경영기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